

19세기 동래부 『사상면 호적중초』의 내용과 사상면 지역사회의 성격

진 상 원*

| 목 차 |

- | | |
|--------------|-----------|
| I. 머리말 | V. 직역 |
| II. 지리적 환경 | VI. 호의 구성 |
| III. 호수와 인구수 | VII. 맺음말 |
| IV. 연령 | |

I. 머리말

조선왕조에서 작성된 동래부의 구식 호적대장은 현재 한 점도 남아 있지 않다. 왕조 말기에 기존의 호적이 신호적으로 바뀐 후 구식 호적대장들을 중앙정부로 이관하라는 명이 내려오자 이를 모두 불태운 후 지금의 복천동 박물관 터에 묻어버리고 그 자리에 ‘永慕壇’이란 비석을 세웠다. 구식 호적대장들을 중앙정부로 이송하면 거기에 기재된 조상의 성명이 타인의 손에 훼손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최근 민

* 동아대학교 사학과 / myneo@hanmail.net

간에서 보존하고 있던 『사상면 호적중초』가 발견되어¹⁾ 비록 일부 지역에 지나지 않지만 조선후기 동래부 지역사회의 실상을 호적자료를 통해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

『사상면 호적중초』는 동래부의 사상면에서 1888년과 1891년에 각기 작성한 것이다. 호적중초란 각 고을에서 호적대장을 작성할 때 면리와 같은 하부 행정단위에서 호구를 각기 조사해 수령에게 올린 기초자료이다. 더욱이 이 호적중초가 작성된 사상면 지역은 동래부의 13개 면들 중 가장 주변적인 지역의 하나라는 점에서 19세기 동래의 주변부 지역 사회에 대한 접근의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호적대장이나 호적중초 등을 활용한 조선시대 사회사 연구는 이미 많이 이루어져 왔고 그 성과도 상당히 축적되어 있는데 주로 사회 지위와 사회 이동에 초점을 맞춘 연구에 집중되어 있다. 호적대장에 기재된 호구가 실제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호적대장이나 호적중초는 오늘날의 호적자료나 인구센서스와 달리 부세의 징수를 위해 작성된 것이다. 그 때문에 작성과정에서 부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편제되었으므로 호적 대장의 기재 내용들이 실제 그 사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과 더불어 기존의 성과들에 대한 회의가 제기되고 있다.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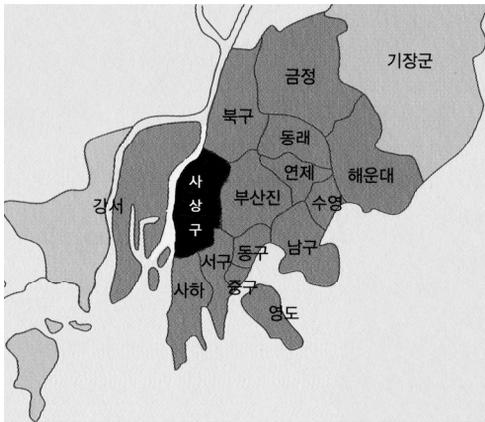
이 글은 『사상면 호적중초』의 내용과 아울러 이를 통해 파악되는 19세기 동래부 사상면 지역사회의 성격을 소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사회사와 지역사 연구에서 호적자료가 가진 근원적인 한계를 분명히 하고 이를 넘어설 수 있는 새로운 연구방법의 모색에 기여하자는 것이다.

1) 백이성, 『朝鮮時代 東萊府 沙川面 古文書』, 洛東文化院, 2000.

2) 이에 대한 연구사정리는 다음 논문을 볼 것. 권내현, 「조선후기 호적에 대한 이해」 『韓國史研究』 165, 2014.

II. 지리적 환경

『사상면 호적중초』가 작성된 19세기 동래부의 사상면 지역은 현재 부산광역시 사상구의 영역과 거의 일치하고 있다.³⁾ 현재 이 지역은 부산에서 서부 경남으로 나아가는 길목에 해당하지만 당시에는 동쪽으로 백양산 자락이 동래 읍치로 가는 길은 막고 있고, 남쪽으로는 구덕산과 승학산, 엄광산이 부산포로 가는 길을 막고 있는 폐쇄된 강변 마을이었다.⁴⁾ 게다가 사상면이 연한 낙동강의 물길인 현재는 하나로 합쳐져 도도하게 흐르지만 당시에는 경상도 내륙에서 흘러온 강물이 삼량진을 지나 구포 앞에서 세 갈래로 나뉘어져 흘렀는데 그 본류는 사상면의 맞은편인 김해 쪽이어서 사상면은 낙동강 수운의 주노선에서도 벗어나 있었다.⁵⁾



<그림 1> 부산광역시 행정지도

- 3) 다만 삼락동 일대는 북구지역과 더불어 19세기 당시에는 양산군에 속해 있었다.
- 4) 『사상구지』 3, 부산광역시 사상구, 2015, 19~21쪽.
- 5) 이훈상·김정하 외, 『부산시 낙동강 델타 지역 사회 민속지』, 동아대 석당학술원 한국학연구소, 2014, 9~18쪽.

이렇듯 낙동강 수운에서도 주변적인 위치에 있었던 사상면 지역은 동래부의 읍치에서 보면 서남쪽 바다와 낙동강을 통해 들어올 수 있는 외침의 위협이나 자연의 재해를 산 너머에서 미리 막아줄 수 있는 외곽 변두리 지역에 해당한다. 잘 알려져 있듯이 동래부는 임진왜란 당시 왜적이 가장 먼저 침략해 왔던 곳으로 조선왕조의 동남부 최전방 군사 지역이었다. 따라서 19세기 동래부의 사상면 지역은 조선왕조의 변방 중에서도 변방이라고 할 수 있다.⁶⁾



<그림 2> 19세기 말의 사상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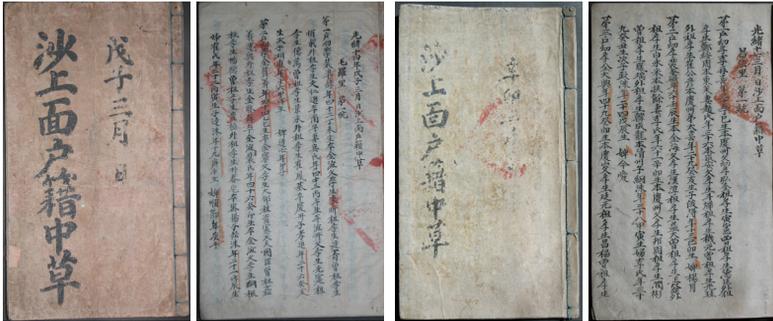
Ⅲ. 호수와 인구수

현존하는 『사상면 호적중초』는 1888년과 그 다음 식년인 1891년에 각기 작성된 것인데 둘 다 단권의 책자로 되어 있다.⁷⁾ 갑오개혁 이후

6) 사상면의 이러한 주변적 성격은 전근대 행정제도의 편제에서도 나타난다. 이 지역은 통일신라 때 백양산 바로 너머 마을에 읍치를 둔 東平縣의 산 너머 외곽지역이었는데 당시 동평현은 東萊郡의 속현이었다. 그리고 고려왕조에 들어서서는 이웃 梁山 지역인 良州의 속현으로 있었다. 그러다가 조선왕조가 창건되면서 동평현이 다시 東萊縣의 속현이 되고 마침내 명종 2년(1547)에 동래현이 도호부로 승격되면서 동래부의 한 지역으로 흡수되어 사상면 지역은 동래부 외곽의 변두리가 되었다.

7) 1888년의 것은 가로 21cm, 세로 35.5cm 크기의 두터운 한지로 된 표지에 “戊子 三月

1897년부터는 새로운 형식의 신식호적이 작성되었으니 구식 호적으로서는 거의 최말기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3> 『사상면 호적중초』(1888년) <그림 4> 『사상면 호적중초』(1891년)

19세기 말 당시 사상면은 모두 11개의 리로 구성되어 있었다.⁸⁾ 이 11개 리들의 호구수를 살펴보면 주례리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이 모라리, 창법리, 덕포리의 순이다. 이러한 순위는 1888년과 1891년 두 식년의 호적중초에서 동일하게 나타난다.

日 沙上面戶籍中草”라고 써져 있고 106쪽 분량의 속지에 매 쪽 10행씩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바로 그 다음 식년인 1891년의 것도 앞의 것보다 조금 작은 가로 21cm, 세로 35cm의 표지에 “辛卯三月 日 沙上面戶籍中草”란 제명이 표기되어 있고 앞서와 동일한 분량에 같은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두 책 다 사상면 11개리의 호구를 수록하고 있는데 그 기준을 알 수 없지만 각리의 수록 순서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1888년의 것은 모라, 덕포, 창법 등의 순으로 기재하고 있지만 1891년의 것에는 창법, 모라, 덕포의 순으로 되어 있고 그 나머지 리의 기재 순서는 앞의 책과 동일하다.

8) 현재 전승되고 있는 호적중초가 작성된 1888년(무자년)과 1891년(신묘년) 당시 동래부의 사상면은 주례리와 모라리를 비롯한 모두 11개의 리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러다가 1910년에 행정구역이 개편되면서 꽤내리와 창법리가 합쳐져 꽤법동으로 되고, 장문리와 학성리 및 구덕리가 합쳐져 학장동이 되었다. 그 뒤 다시 서전리와 감동리가 합쳐져 감전리가 되고 양산군에 속했던 삼락리가 편입되었으며 1963년에 각리가 동으로 승격되어 현재 사상구는 기본적으로 모라동, 덕포동, 꽤법동, 감전동, 주례동, 학장동, 엄궁동 및 삼락동으로 편제되어 있다.

이 두 책에 표기된 사상면 전체의 戶數를 비교해 보면 1888년에는 246호였는데 그 3년 후인 1891년에는 264호로 18호(7%)가 더 생겨났다. 그리고 인구수는 1,212명에서 1,265명으로 53명(4%)이 더 많아졌다. 즉 호수와 인구수가 모두 증가하였는데 호수가 인구수보다 조금 더 증가하여 호당 평균 인구수는 4.9명에서 4.8명으로 0.1명이 줄어들었다.

또 남녀의 성비를 살펴보면 1888년에는 남자가 628명이었는데 비해 여자의 수는 584명으로 44명이 적어 남자의 수가 여자의 수보다 7.0% 더 많았다. 그러나 1891년에는 3년 전에 비해 남자의 수가 7명 줄어 621명이었는데 반해 여자의 수는 무려 60명이나 더 많아져 644명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3.6%(23명) 더 적었다.⁹⁾

1888년의 『사상면 호적중초』가 작성되었던 무자년(1888년)의 호구조사에서 파악된 동래부 전체의 호수와 인구수가 『동래부읍지』(1899년)에 수록되어 있어 사상면의 호구수가 동래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알 수 있다. 당시 사상면의 호수는 동래부 전체의 3.6%이고, 인구수는 남자가 동래부 전체의 4.7%, 여자가 4.2%이며 남녀를 합하면

9) <표 1> 『사상면 호적중초』에 기재된 호수와 인구수

이명 (里名)	1888년(무자년)						1891년(신묘년)					
	호수	인구수			성비 (性比)	호당 구수	호수	인구수			성비 (性比)	호당 구수
		남자	여자	계				남자	여자	계		
창법	34	68	72	140	94.4	4.1	32	65	71	136	91.6	4.3
모라	54	122	129	251	94.6	4.6	60	133	148	281	89.9	4.7
덕포	31	56	55	111	101.8	3.6	32	61	64	125	95.3	3.9
괘내	9	23	24	47	95.8	5.2	9	27	26	53	103.8	5.9
감동	14	46	39	85	117.9	6.1	17	52	49	101	106.1	5.9
주례	58	164	133	297	123.3	5.1	60	147	140	287	105.0	4.8
서진	13	39	39	78	100.0	6.0	13	33	40	73	82.5	5.6
장문	12	47	38	85	123.7	7.0	14	32	37	69	86.5	4.9
학성	8	21	20	41	105.0	5.1	10	22	24	46	91.7	4.6
엄광	11	33	31	64	106.5	5.8	14	41	41	82	100.0	5.9
구덕	2	9	4	13	225.0	6.5	3	8	4	12	200.0	4.0
계	246	628	584	1,212	106.7	4.9	264	621	644	1,265	96.4	4.8

4.4%에 불과하다. 이러한 수치로만 보면 사상면은 동래부 전체 13개 면 중에서도 호수와 인구수가 모두 비교적 적었던 지역이라고 여겨진다.

그러나 이러한 수치를 그 21년 후인 1910년 한일병합 전후에 조사된 것과 비교해 보면 크게 차이가 난다.¹⁰⁾ 1910년 10월에 발표된 『민적통계표』에 의하면 사상면의 호수는 1,002호로 동래부 전체의 7.2%에 해당하고, 인구수 역시 남자가 2,623명으로 동래부 전체의 7.4%, 여자가 2,440명으로 동래부 전체의 7.2%이며 남녀 합하면 모두 5,063명으로 동래부 전체의 7.3%를 점하고 있다.¹¹⁾

10) <표 2> 19세기 말~20세기 초 사상면의 호수와 인구수 비교

연도	호수	인구수			성비 (性比)	호당 구수	출전
		남자	여자	계			
1888년	246 [3.6]	628 [4.7]	584 [4.2]	1,212 [4.4]	107.5	4.9	『사상면 호적중초』 1888년(무자년)
	(6,728)	(13,442)	(13,833)	(27,275)	(97.2)	(4.1)	『동래부읍지』 (1899년, 광무 3년)
1891년	264	622	643	1,265	96.7	4.8	『사상면 호적중초』 1891년(신묘년)
1904년	255	·	·	·	·	·	『동래부 가호안』 (1904년)
1910년	955	2,635	2,461	5,096	107.1	5.3	『동래부 각면보고서』 (1910년 2월 21일)
	964	2,716	2,523	5,239	107.6	5.4	『동래부 각면보고서』 (1910년 6월 24일)
	1,002 [7.2] (13,960)	2,623 [7.4] (35,568)	2,440 [7.2] (33,901)	5,063 [7.3] (69,469)	107.5 (105.0)	5.1 (5.0)	『민적통계표』 (1910년 9월 25일)

* ()안은 동래부 전체의 수입

* []안은 동래부 전체에서 사상면이 차지하는 비율(%)임.

11) 1910년 당시 동래부의 호수와 인구수를 보여주는 자료로 10월에 발표된 『민적통계표』 외에도 2월과 6월에 조사가 행해진 것들이 있다. 일제가 한일병합을 앞두고 각 지역의 호수를 조사하여 면리의 통폐합을 단행하는 등 행정구역을 대대적으로 개편하였다. 이를 위해 각 지역의 면장들이 그 전후의 호수와 인구수를 각기 보고해 올렸다. 당시 사상면의 호수는 2월에 955호, 6월에 964호로서 1888년의 246호나 1891년의 264호라는 호적중초에 표기된 수치에 비해 3.5배 이상 더 많다. 인구수 역시 1910년 2월에는 남자 2,635명, 여자 2,461명으로 남녀의 수를 합하면 5,096명이었고 그 해 6월에도 남자 2,716명, 여자 2,523명 남녀 합해 모두 5,239명으로 1888년의 수치들에 비해 모두 4배 이상 많다.

이러한 『민적통계표』의 내용은 일제가 식민통치를 위한 기초 작업을 위해 1909년 3월 민적법을 공포하고 경찰기관이 주관해 실시한 것으로 실제의 수치에 최대한 부합하려 노력했던 것이다. 이 조사 결과는 최초의 근대적 방식에 의한 호구조사였다고 평가되는 1925년의 간이국세조사에 미치지 못하는 못하지만 실제 인구의 7~8할을 파악한 것으로 추정되며 특히 개항장이 포함된 동래부의 수치는 전국에서도 가장 실제에 근접한 것이라고 여겨진다.¹²⁾

그러므로 앞서 본 『사상면 호적중초』의 수치들은, 21년이라는 시차 특히 개항기라는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호수는 3.5배, 인구수 4배 이상으로 추정해 보아야 실제에 근접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기왕의 연구 성과에 따르면 19세기의 호적대장에 중서층의 50%, 평·천민층의 90%가 수록되지 못하였다고 한다.¹³⁾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양반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변방의 민촌지역이었던 동래부 사상면에서 작성한 호적중초에 수록된 이러한 호구수는 다른 지역에 비해 오히려 실제 호구수와 차이가 적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동래부 전체의 호수와 인구수에서 사상면이 차지하는 비율을 『사상면 호적중초』(1888)의 수치로 계산해 본 것과 『민적통계표』(1910년)의 수치로 계산해 본 것이 크게 다른 현상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사상면의 호수가 동래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호적중초에서는 3.6%였는데 비해 『민적통계표』에서는 7.2%로 두 배나 많다. 또 사상면의 인구수가 동래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호적중초에는 남자가 4.7% 여자가 4.2% 남녀 통 털어 4.4%였는데 비해 『민적통계표』에서는 남자 7.4%, 여자 7.2% 남녀 모두 합해 7.3%로 약 한 배 반 이상 많다.

12) 이현창, 『民籍統計表의 해설과 이용방법』,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1997.

13) 정진영, 「18~19세기 호적대장 ‘戶口’ 기록의 검토」 『대동문화연구』 39, 2001.

이렇듯 호수에서는 두 배, 인구수에서 한 배 반 정도의 비율 차이가 호적중초와 『민적통계표』사이에서 발생하는 것은 부세 부담에 따른 편호와 실제 호 사이의 차이로 인한 것이라고 여겨진다. 이는 1910년 2월에 면리합병을 위한 기초자료로 각 면장이 올린 보고서에 수록된 『戶口結數表』와 그 해 10월 공포된 『민적통계표』에 수록된 ‘면별 직업 분포’를 보면 알 수 있다.¹⁴⁾

동래부 전체의 경지가 2,983결 337속인데 이 중 사상면의 경지는 176결 314속으로 동래부 전체의 5.9%에 해당한다. 그리고 동래부 전체의 1인당 평균경지를 계산해 보면 44.49속인데 비해 사상면의 그것은 34.60속으로서 동래부 전체의 1인당 평균경지에 비해 9.89속이나 적다. 1인당 평균경지가 사상면보다 적은 면이 사중면, 사하면, 부산면 등 세 곳이나 있지만 『민적통계표』에서 이 세 면 戶들의 직업 분포를 보면

14) <표 3> 동래부 각면의 호구결수표

연번	면명	호수	총인구	남자	여자	耕地 (0結.000束)	1인당 平均 耕地(束)	
1	沙中面	1,586	8,497	4,370	4,127	92.868	10.93	√
2	釜山面	1,512	6,851	3,488	3,363	119.861	17.50	√
3	西下面	508	3,013	1,541	1,472	184.958	61.39	
4	南面	553	2,980	1,520	1,460	219.287	73.59	
5	東下面	430	2,267	1,142	1,125	209.041	92.21	
6	東上面	567	3,163	1,661	1,502	243.907	77.11	
7	邑內面	1,573	8,497	4,231	4,266	325.769	38.34	
8	西上面	447	2,347	1,199	1,148	305.929	130.35	
9	北面	1,040	5,186	2,659	2,527	440.653	84.97	
10	左耳面	1,044	5,286	2,693	2,593	292.702	55.37	
11	沙上面	955	5,096	2,635	2,461	176.314	34.60	
12	沙下面	2,265	12,487	6,621	5,866	198.504	15.90	√
13	東平面	265	1,393	755	638	173.544	124.58	
	계	12,745	67,063	34,515	32,548	2,983.337	44.49	

* 사중면과 북면의 인구수는 남녀별인구수에 비해 인구수가 작아가 있어 8,507을 8,497로, 5,196을 5,186으로 각기 수정하였음.

출전: 1910년 2월 21일 起案, 報告 第 137호 面里洞合併의件, 『東萊府 各面報告書』 2, 『各司謄錄』 14: 경상남도 4, 國史編纂委員會, 1985, 651쪽.

상업이나 어업 등 비농업 호의 비율이 사상면보다 훨씬 높다.¹⁵⁾ 사상면은 농업에 종사하는 호가 1,003호 중 946호로 전체 호의 94%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데 반해 1인당 평균 경지는 동래부 전체의 평균보다 아주 적었다.

이렇듯 사상면 주민들은 절대 다수가 농업에 종사하지만 인구수에 비해 경지가 다른 면보다 적었기 때문에 부세 부담 능력이 다른 면들에 비해 많이 떨어졌을 것이다. 이 때문에 부세 부담 정도에 맞추어 호를 편제하였던 호적중초와 실제수를 파악하고자 했던 『민적통계표』 사이에 호수에서는 두 배, 인구수에서 한 배 반 정도의 비율 차이가 난다고 생각된다. 앞서 ‘I. 지리적 환경’에서 언급한 사상면의 주변적 성격이 호적중초의 내용에서도 이와 같이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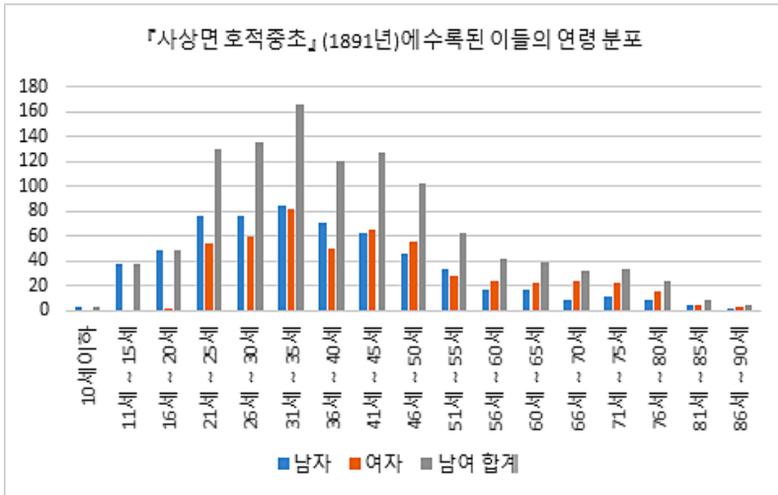
15) <표 4> 『민적통계표』(1910년)에 수록된 동래부의 면별 직업 분포

면명	직업	관공리	양반	유생	상업	농업	어업	공업	광업	일가	기타	무직	계(호)
수면		16	1	0	234	1,563	0	81	5	18	1	7	1,926
서상면		0	0	0	10	443	0	7	0	6	1	5	472
북면		0	0	0	18	973	0	6	0	9	8	7	1,021
동상면		0	0	20	9	544	0	8	0	4	0	3	588
동하면		0	0	0	5	373	30	4	0	5	0	3	420
남면		3	0	0	25	473	53	7	0	6	0	6	573
√ 부산면		13	16	0	856	374	65	22	8	105	8	50	1,517
용주면		7	1	0	26	328	12	13	0	33	3	130	553
서하면		9	5	0	63	273	0	19	0	37	7	152	565
좌이면		1	5	3	213	735	32	7	5	61	21	1	1,084
사상면		1	0	0	21	946	9	5	2	15	3	1	1,003
동평면		1	0	0	5	272	0	0	0	5	3	2	288
√ 사하면		5	0	0	345	762	420	22	3	403	377	25	2,362
√ 사중면		24	0	0	319	313	124	72	5	654	60	80	1,651
계		80	28	23	2,149	8,372	745	273	28	1,361	492	472	1,4023

IV. 연령

현존하는 『사상면 호적중초』 중 호수와 인구수가 상대적으로 더 많은 1891년의 것에 등록된 이들의 연령분포를 정리해 보면 다음 <표 5>와 같다. 노비는 대상에서 제외하였는데 연령이 간지로서만 표기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정확한 연령을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표 5>



이 <표 5>를 보면 모두 604명인 남자는 평균연령이 36세이고 그 수가 84명에 달하는 30대 전반을 정점으로 좌우 비대칭의 형태를 이루고 있다. 10세 이하는 단 3명에 불과하고 50대 후반부터 90세까지는 모두 8명으로 남자 전체 인구의 11%를 차지하고 있는데 고연령대로 갈수록 그 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

모두 509명인 여자는 평균연령이 남자보다 8세나 높은 44세이고 그

수가 82명에 달하는 30대 전반을 정점으로 남자와 마찬가지로 좌우비 대칭의 형태를 이루고 있다. 더욱이 여자는 남자와 달리 20세 이하가 전혀 없다. 또 50대 후반 이후의 노령층 수가 114명으로 여자 전체 인구의 22%를 차지하여 그 수나 비율에서 남자보다 곱으로 많을 뿐 아니라 50대 후반부터 70대 전반까지 각 연령대에 20여 명 정도의 일정한 수로 고르게 분포하고 있다.

그리고 여자가 남자에 비해 95명이나 적은 까닭은 노비의 경우 연령을 제대로 기재해 놓지 않아 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¹⁶⁾ 사상면 전체를 통 털어 노비가 주호인 호가 아예 없을 뿐 아니라 奴의 수는 겨우 네 명인데 비해 婢의 수는 132명에 달한다. 당시 사상면 전체의 호수가 264호여서 두 집에 한 명 꼴로 솔거하는 비녀가 존재했던 셈이다.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주변적 성격이 짙게 드러나는 19세기 말의 사상면에 비녀가 이렇게 많이 있었다는 것이다. 기왕의 연구에 따르면 이것은 주호의 직역이 유학으로 균질화 되는 것과 더불어 나타나는 19세기 말 호적대장의 특징적인 현상으로서 이 노비들은 허구의 인물들일 것이라고 한다.¹⁷⁾ 이렇듯 『사상면 호적증초』의 연령 기재 내용은 여기에 수록된 戶가 편제된 호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16) 1888년의 호적증초에는 양인은 연령과 출생년의 간지를 모두 기재하였지만 노비의 경우에는 출생년의 간지만 기재하거나 아예 둘 다 모두 기재해 놓지 않았다. 그러나 1891년의 것에는 예외적으로 모라리에서는 일부 노비의 경우에 출생년의 간지 대신 연령만을 기재해 놓았다. 이렇게 연령만 기재해 놓은 비녀가 모두 6명인데 이들은 각기 28세, 33세, 35세, 36세, 39세, 65세로 대다수가 30대의 인물들이며 평균 연령은 39세이다.

17) 김건태, 「戶名을 통해 본 19세기 職役과 率下奴婢」 『한국사연구』 144, 2009.

V. 직역

1891년의 『사상면 호적중초』에 기재된 주호 264명의 직역은 가선대부 2명, 군관 1명, 동몽 3명, 樂手 1명, 驛吏 4명 등 이상의 11명 외에는 모두 유학이다. 거의 모든 주호들이 자신의 직역을 유학으로 칭하고 있는 사례는 이보다 3년 전에 작성된 1888년의 것에도 보이며 19세기 말에 작성된 전국의 모든 호적대장에 공통적으로 나타는 현상이다.¹⁸⁾

1891년의 『사상면 호적중초』에서 ‘유학’이나 ‘동몽’을 직역으로 칭하지 않은 사례를 주호와 그 四祖를 통 털어 적출해 보면 가선대부와 통훈대부 및 절충장군, 오위장 등의 고위 관계나 관직들이 보이는데 사상면에는 양반이 사실상 거주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고려해 볼 때 이 관계나 관직들은 실직이 아니고 모두 납속으로 받았거나 노직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비록 납속직이나 노직일지라도 이러한 관계나 관직을 받았던 이들이 사상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사회 지위나 위세가 높았을 것이다.¹⁹⁾

비록 납속직이나 노직일지라도 국가로부터 관계나 관직을 받은 이들 중 천총이나 파총 등 무임을 역임한 이들이 다수였다는 사실을 다음의 <표 6>을 통해 볼 수 있는데 이는 양반이 사실상 거주하지 않았던 사상면에서 관청 일을 보았던 이들 무임 계층이 지역 엘리트로서의 역할을 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18) 김진태, 앞의 글.

19) 실제로 1891년 당시의 주호들 중에 가선대부의 관직을 가진 두 사람은 본인뿐 아니라 이들의 부와 조 및 증조가 모두 가선대부나 통훈대부였으며 게다가 이 둘 중 한 명은 사상면의 면장과 존위를 직접 역임하였다. 그리고 주호 자신이 이러한 고위 관계나 관직을 받지는 못하였지만 부친이 관계나 관직을 받았던 이들이 다섯 명 있는데 이들의 조부와 증조도 역시 이러한 관계나 관직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며 한 사람의 예외를 제외하면 이들 자신들도 모두 사상면에서 면장 또는 유사를 역임하거나 동안에 입록된 엘리트들이다. 또 주호와 그 부친이 관계나 관직을 받지 못했지만 주호의 조부가 관계나 관직을 받은 주호가 9명 있는데 이 중 3명이 동안에 입록된 엘리트들이다.

<표 6> 주호와 四祖의 직역 중 관계를 가진 부류들

주호				부	조	증조	외조	주호의 거주지
직역	성명 (기타 직임)	연령	본	직역 (기타 직임)				
가선대부	황종문 (면장, 존위, 동안)	74	창원	가선대부	통정대부 (동안, 소임)	통훈대부 (장파, 장초, 별별, 교교, 위하)	신략장군 (장초, 청백)	덕포
가선대부	손치선	77	밀양	가선대부	통정대부	통훈대부	학생	덕포
유학	서동록	76	달성	가선대부 (동안, 장초)	통정대부	통정대부	학생	모라
유학	김유현 (동안)	72	김녕	중훈대부 (장파, 장초, 별별, 부)	자헌대부 (동안, 수백)	가선대부	통덕랑	모라
유학	서량옥 (면장, 동안)	54	달성	관관	가선대부	통정대부	학생	모라
유학	서학승 (면장, 동안, 장초)	57	달성	관관 (장초, 청별, 작백)	오위장 (장천, 장파, 장초)	절충장군 (장파, 장초)	관관 (장초)	모라
유학	박경무 (동안, 有司)	59	밀양	절충 (장초)	승록대부 (장초)	관윤 (장초, 별대, 교교, 수별)	학생 (위하)	모라
유학	김찬의 (동안)	47	김녕	학생 (장초, 별대)	자헌대부 (동안, 공사원, 수백)	가의대부	학생	모라
유학	박기채 (동안)	48	밀양	학생	가선대부 (동안, 장파, 장초)	통정대부	학생 (동안, 장파, 장초)	모라
유학	박주신	34	밀양	학생 (장초)	가선대부 (동안, 장파, 장초)	통정대부	학생 (장파)	덕포
유학	김제진	40	김녕	학생 (장초, 교교)	가선대부 (장초, 별대, 교교, 위하)	절충장군 (장초, 별대, 교교)	학생	모라
유학	김돈수	39	김녕	유학	통정대부 (장초, 청백)	좌윤 (동안, 수백)	학생 (장천, 장파, 장초)	모라
유학	김황준 (동안, 공사원)	45	김녕	학생	절충장군 (장천)	가선대부 (동안)	훈련관관 (장초)	모라
군관	황희준	40	창원	학생	절충장군 (교교)	병절교위	학생	덕포
유학	이원도 (위하)	42	경주	학생 (장초)	훈련관관	가선대부 (장초, 별대, 교교)	학생	덕포

유학	서달원	44	달성	학생	관관 (장초,청별, 작백)	오위장 (장친,장파, 장초)	학생	모라
유학	박인술 (장초,교교)	36	밀양	학생 (장파,장초)	학생 (장초,위하, 수백)	가선대부 (장초,별대, 교교,위하)	학생	덕포
유학	김성규	42	김해	학생	학생	관관	학생 (장파)	덕포
동몽	박원식	12	무안	학생	학생	사과	학생 (집)	모라
유학	황운규	27	창원	학생	학생	급제 (장초,별별, 별대,청백)	학생	창법

출전: 『사상면 호적중초』(1891), 이훈상·손숙경, 『조선후기 동래의 武廳先生案과 武任 총람』(동아대 석당학술원 한국학연구소, 2009)

VI. 호의 구성

1891년의 『사상면 호적중초』에 수록된 호의 구성원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 <표 7>과 같다. 이 <표 7>에 따르면 호의 구성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두 집에 한 명 꼴로 있는 비녀를 제외하면, 주호의 부부로만 구성된 호가 가장 많고 주호 부부와 아들 그리고 이들과 며느리 또 여기에 손자가 더해진 호의 순으로 분포되어 있다. 그러나 장자를 중심으로 한 이러한 직계 가족 외에도 사촌이나 6촌까지 포함한 호도 제법 있었다. 종족화의 정도가 미약했던 사실을 고려해 보면 확대가족으로 구성된 이러한 호는 2호 이상의 자연호를 호구총에 맞추어 하나의 호로 편제한 것이라 여겨진다. 예컨대 『호적중초』(1891년)에 따르면 모라리 5통 3호의 주호 李圭燮(67세)은 처와 아들(35세) 내외 그리고 동생(57세) 내외와 조카 1명(24세) 및 비녀 1명 등 모두 7명을 술하에 두고 있었는데 호적중초가 작성된 그 이듬해인 1892년에, 한동안 파치되었던 사상면 엘리트들의 명단을 수록한 洞(面)案인, 『大同新案』(1892년~1903년)이

새로 만들어지면서 그의 아들과 동생이 여기에 동시에 입록 되었다. 그리고 주례리 7통 1호의 주호인 裋珍龜(42세) 부부도 사촌 동생(32세) 내외와 한 호를 이루고 있었는데 1892년에 『大同新案』이 새로 만들어지면서 그와 사촌 동생이 같이 입록 되었다. 한 호에 속하는 두 사람이 동(면)안에 동시에 입록 되는 사례는 찾아보기 쉽지 않은데 이 두 사례는 이들이 호적에 한 호로 편제되었지만 실제로는 서로 다른 자연호를 이루고 살았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여겨진다.

또 이 호적중초에서 주호의 女와 질녀 및 손녀를 한 명도 찾아 볼 수 없다는 사실은 이 호적중초에 보이는 호가 편제호였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하게 해준다.

<표 7> 戶의 구성원

남		여	
관계	인원수	관계	인원수
主戶	264	妻	249
祖父	0	祖母	6
父	3	母	78
子	176	婦	92
女婿	0	女	0
孫	19	孫婦	4
孫女婿	0	孫女	0
兄	3	兄嫂	1
弟	82	弟嫂	46
姪	20	姪婦	8
姪子	5	姪女	0
叔父	10	叔母	8
從叔	2	從叔母	3
從兄	6	從兄嫂	2
從弟	20	從弟嫂	12
從姪	2	從姪婦	2
再從祖	1	再從祖母	0
再從叔	0	再從叔母	0
再從兄	1	再從兄嫂	0
再從弟	2	再從弟嫂	0
再從姪	1	再從姪婦	0
再從嫂弟	1	.	.
奴	4	婢	132
소계	622	소계	643
총계		1,265	

출전: 『사상면 호적중초』(1891년)

VII. 맺음말

조선왕조 사회에서 동래부의 사상면은 동남부 변방 군사요충지의 외곽 변두리에 위치한 민촌 지역이었다. 19세기 말에 이 지역에서 작성된 두 식년의 호적중초(1888년, 1891년)가 현재 전승되고 있는데 이는 구식 호적대장이 전혀 남아있지 않는 부산 동래 지역의 것이라는 점에서 조선후기 이 지역사회의 사회상을 밝힐 수 있는 주요한 자료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

이 『사상면 호적중초』에 등재된 호수는 3.5배 이상, 인구수는 4배 이상으로 추정해 보아야 1910년에 비교적 근대적 방법으로 조사한 『민적통계표』의 수치에 근접할 수 있다. 또 여기에 수록된 사상면의 호수와 인구수가 동래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민적통계표』의 그것보다 훨씬 적다. 이것은 당시 사상면 주민들의 부세 부담 능력이 다른 면들에 비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부세 부담 정도에 맞추어 호를 편제하였던 호적중초와 실제수를 파악하고자 했던 『민적통계표』 수치의 차이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여겨진다. 이렇듯 사상면의 주변적 성격이 호적중초의 내용에서도 드러나는데 이 호적중초에 등재된 호가 자연호가 아니고 편제된 것이라는 사실을 호의 구성과 구성원의 연령 및 직역을 통해서도 유추할 수 있었다.

그리고 거의 모든 주호가 자신의 직역을 학생이라 칭하고 있는데 이는 두 집에 한 명 꼴로 있는 婢女의 존재와 더불어 19세기 말에 작성된 모든 호적대장에 공통적으로 나타는 현상이다.

이렇듯 현존하는 『사상면 호적중초』는 사회사연구를 위한 자료로서의 성격이 크게 제한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자료의 성격을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다면 19세기 말 동래 지역사회의 모습을 재현하는데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1. 사료

『사상면 호적중초』 1888, 1891.

『各司謄錄』 14(경상남도 4), 國史編纂委員會, 1985.

2. 저서 및 논문

권내현, 「조선후기 호적에 대한 이해」 『韓國史研究』 165, 한국사연구회, 2014.

김건태, 「戶名을 통해 본 19세기 職役과 率下奴婢」 『한국사연구』 144, 한국사연구회, 2009.

백이성, 『朝鮮時代 東萊府 沙川面 古文書』, 洛東文化院, 2000.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구지』 3, 부산광역시 사상구, 2015.

이현창, 『民籍統計表의 해설과 이용방법』,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1997.

이훈상 외, 『조선후기 동래의 武廳先生案과 武任 총람』, 동아대 석당학술원 한국학연구소, 2009.

이훈상 외, 『부산시 낙동강 델타 지역 사회 민속지』, 동아대 석당학술원 한국학연구소, 2014.

정진영, 「18~19세기 호적대장 ‘戶口’기록의 검토」 『대동문화연구』 39,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01.